스위스 가을 여행.

로컬들이 제안하는 스위스 가을 여행 법

한 지역에서 3 일은 머무는 여행
로컬이 추천하는 레스토랑과 호텔 팁
다시, 자연의 품으로
스위스 가을의 품으로

스위스 사람들의 여행 법은 어떨까? 단기간의 일정 동안 최대한 많은 곳을 둘러보려는 아시아 여행자들의 여행 법과는 조금 다르다. 한 숙소에서 최소한 3 일은 머무는 그들은 짐을 풀고, 그 주변부까지 충분히 즐긴다.

아름다운 호텔과 솜씨 좋은 레스토랑, 황금빛 가을 날을 즐길 수 있는 3 일 간의 여정을 로컬들이 소개한다. 스위스의 가을, 그 품 속으로 안겨볼 수 있는 체험도 빠지지 않는다.

1. 루체른(Luzern)
루체른 호숫가를 즐기며
루체른(Luzern) 시티는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중앙 스위스로의 관문은 카펠교와 시계 상점 외에도 수많은 매력을 발산하는데, 아름다운 하이킹, 파노라마 자전거 투어, 여유로운 유람선 여정, 풍성한 레스토랑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 1 일차 -
필라투스(Pilatus): 꽃 트레일에서의 하이킹
필라투스 쿨름(Pilatus Kulm)에서 필라투스 최고봉인 톰리스호른(Tomlishorn)까지 이어지는 꽃 트레일(Flower Trail)은 입이 벌어지는 산악 파노라마와 다채로운 야생화를 바라보며 거닐 수 있다. 가파르고 햇살 가득한 바위 경사지는 “빌드호이플랑겐(Wildheuplanggen)”이라고 알려진 꽃이 들판 가득 피어나는데, 오직 강인한 식물만이 이렇게 노출된 험지에서 자라날 수 있다. 필라투스에서 서식하는 식물들은 트레일에 설치된 많은 패널에서 그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데, 식물의 종류, 개화 시기, 라틴 이름이 표기되어 있다.

- 2 일차 -
루체른(Luzern): 호르버(Horwer) 반도를 따라 자전거 투어
루체른 시티에서 시작하는 파노라마 투어는 프라이글라이스(Freigleis) 자전거 길로 이어지는데, 옛 첸트랄반(Zentralbahn) 철로를 따라가게 된다. 트렌디한 노이슈타트(Neustadt) 구역을 지나 호버 반도까지 이어진다. 호숫가를 따라 난 도로를 달리며 필라투스(Pilatus), 슈탄저호른(Stanserhorn), 뷔르겐슈톡(Bürgenstock)의 아름다운 산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첫 번째 휴식은 빈켈 리도(Winkel lido) 수영장에서 취하면 좋은데, 시원한 수영을 즐길 수 있다. 산들의 기막힌 풍경이 한 눈에 들어오는 테라스로 유명한 제호텔 카스타니엔바움(Seehotel Kastanienbaum)을 향해 여정을 이어간다. 이 루트의 마지막 구간은 시골 풍경을 지나고 도시의 변두리를 향해 여정을 이어가다가 다시 루체른 기차역으로 돌아오게 된다.

- 3 일차 -
루체른(Luzern): 사냥감 유람선에서의 정찬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

햇살 가득한 가을날, 루체른 호수에서 유람선을 타고 정찬을 즐겨볼 수 있다. 스위스에서 사냥한 특별한 고기로 신선하게 준비된 요리가 선상에 올라 완벽한 가을 미식 체험을 선사해 준다. 사냥감 유람선은 숲속 분위기를 고스란히 가져와 아름다운 가을 속으로 세일링을 하는 기분에 젖게 한다. 어여쁜 시골 풍경이 지나가고, 사냥 전문가들이 가을에 대한 매력적인 사실을 알려주는데, 예를 들자면 수사슴의 뿔은 무게가 11kg 이나 나가기도 한다거나, 많은 버섯에는 약효가 있다는 것 등이다.

- 레스토랑 팁 –

루체른(Luzern): 호텔 빌덴 만(Hotel Wilden Mann)의 뷔르거슈투베(Bürgerstube)

루체른 중심가에 있는 호텔 빌덴 만은 개성 넘치는 곳으로, 500 년이 넘는 역사를 가졌다. 이는 호텔에 자리한 두 개의 식당 중 하나인 뷔르거슈투베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마을 사람들의 방'이라는 뜻의 시골스러운 식당이다. 옛 루체른으로 돌아가는 시간여행을 할 수 있는데, 옛 루체른 사람들이 한잔을 하며 어떻게 사업을 했을지 엿볼 수 있다. 1908 년의 네오고딕 양식으로 장식되어 있는 레스토랑에는 진한 빛깔의 목재, 수많은 장식, 수공예 유리창에서 잘 드러난다. 실내 분위기만큼이나 메뉴도 전통을 고수해 정성껏 신선하게 준비된다.

- 호텔 팁 –

루체른(Luzern): 호텔 춤 레브슈톡(Hotel zum Rebstock)

호텔 춤 레브슈톡은 루체른 시내의 빛나는 보석이다. 목재 골조의 가옥은 15 세기에 루체른의 와인 생산자들을 위해 지어진 길드 숙소로, 호프키르헤(Hofkirche) 교회 발치에 자리해 있는데, 나중에 대성당 수사 신부들을 위한 선술집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지금은 호텔로 29 개의 특색 있는 객실과 패밀리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해 따뜻하고 편안하게 여행자들을 맞이하고 있다. 바 하나와 몇 개의 레스토랑에서 로컬 식재료를 사용해 전통 요리를 선보이고 있다. 가을이면 사냥감 요리도 선보이는데, 특별한 미식 체험이 되어준다.

2. 융프라우 지역(Jungfrau Region)

환상적인 산악 풍경 한가운데에서

새파란 하늘과 대조를 이루는 세 개의 만년설 봉우리, 아이거(Eiger), 묀히(Mönch), 웅프라우(Jungfrau)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풍경이다. 이 산들이 뿜어내는 매력은 융프라우 지역 전체에 걸쳐 드러나는데, 절경의 파노라마와 다양한 하이킹 트레일, 따뜻한 환대가 여행자들을 언제나 매료시킨다.

- 1 일차 -

뮈렌(Mürren): 쉴트호른(Schilthorn)의 발치 아래서 하이킹

로트슈톡휘테(Rotstockhütte)는 독특한 알프스 식물에 둘러싸인 뮈렌 꼭대기에 자리해 있다. 돌로 지어진 오두막으로 향하는 트레일은 쉴트호른 케이블카 역에서 시작되는데, 초록 들판과 그늘진 숲들을 둘러 지나 쉴트바흐(Schiltbach) 강까지 이어진다. 지형이 점차 가팔라지는 지점이다. 첫 번째 하이라이트는 브린들리(Bryndli)로, 슈필보덴(Spilboden)에서 시야에 들어온다. 트레일은 바젠에그(Wasenegg)를 넘어 한참을 쉬어가기 좋은 오두막까지 이어진다. 맛있는 음식과 베르네제 알프스의 만년설 봉우리들이 펼쳐지는 이 곳에서 조금 더 쉬어가며 기력을 회복한 뒤, 와일드한 제피넨탈(Sefinental) 계곡을 통해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하면 좋다.

- 2 일차 -

하슬리탈(Haslital): 지델호른(Sidelhorn)으로 향하는 인상적인 순환 하이킹
2,764m 높이의 지델호른 봉우리에서는 베르네제 알프스와 발레 알프스까지 펼쳐지는 만년설, 수정처럼 맑은 산정 호수들, 세차게 흐르는 시내와 론느(Rhone) 빙하와 오버아아르(Oberaar) 빙하의 기괴한 형태가 빼곡하게 담긴 파노라마가 눈 앞에 펼쳐진다. 하지만 이 풍경을 담기 위해서는 꽤 수고해야 하는데, 가벼운 산악 투어를 예상하면 된다. 투어는 그림젤 고개(Grimsel Pass)에서 시작하고 끝나는데, 그 사이에는 약 7km 에 달하는 하이킹 천국이 펼쳐진다. 이 트레일의 일부는 유럽 대륙으로 흐르는 강물의 경계를 따라 이어지는데, 이곳에서 강물은 지중해나 대서양으로 흘러 들어간다.

- 3 일차 -
그린델발트(Grindelwald): 높은 곳에서 만나는 다채로운 마켓 라이프
10 월 첫 월요일은 그린델발트에서 평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날이다. 바로 "그린델발트 매르트(Grindelwald Märt)"가 열리는 날이다. 새벽 6 시부터 관광객들과 주민들인 함께 길거리에 모여 서늘한 가을 공기를 타고 퍼져 나가는 맛있는 음식 냄새를 좇기에 여념이 없다. 다양하고 다채로운 장터 가판대는 특색이 분명하다. 빛깔이 화려한 장난감과 손으로 직접 짠 양털 모자부터 마못 인형과 온갖 종류의 잡동사니까지, 모두를 즐겁게 할 것들로 가득하다. 허기가 몰려오면, 많은 음식 가판대 중 하나를 찾아 새끼 돼지고기 요리나 군밤 한 봉투, 달콤한 크레프를 즐겨보아도 좋다.

- 레스토랑 팁 –
라우터브룬넨(Lauterbrunnen): 에어타임 카페(Airtime Café)
에어타임 카페는 크리에이티브한 디자인과 훌륭한 커피, 홈메이드 먹거리로 찾는 이들을 매료시키고 있다. 아침이면 창가의 안락의자에 앉아 따뜻한 바나나 포리지나 풍미 좋고 달콤한 프렌치 토스트를 즐기기 좋고, 점심이면 구르메 샌드위치와 맛있는 수프 한 그릇을 맛보기 좋다. 오후에는 케이크 한 조각에 다양한 음료를 즐길 수 있는데, 핫 초콜릿, 마차 라떼, 글뤼바인, 마이크로 브루어리 맥주 등 다채로운 메뉴 때문에 고심해야 한다. 쉬운 방법이 있다. 카페를 한 번 더 찾으면 된다.

- 호텔 팁 –
하슬리베르그(Hasliberg): 호텔 베터호른(Hotel Wetterhorn)
호텔 베터호른은 하슬리베르그의 풍성한 자연 한복판에 자리해 있다. 100 년이 넘은 여름별장으로, 2012 년 애정과 케어를 가득 담아 새롭게 디자인되었다. 원래 건물의 특징을 고스란히 간직하면서도 우아하고 아늑하게 인테리어 디자인이 완성되었다. 호텔의 레스토랑은 언제든 로컬 재료를 사용한다. 미로 같은 와인 셀러를 둘러보는 것이 특별한데, 디너에 곁들일 최상의 와인을 고르기 위해 소믈리에와 함께 찾아볼 수 있다.

3. 엥가딘(Engadin)
훼손되지 않은 풍경 속을 달리며
엥가딘(Engadin) 계곡은 대조되는 풍경으로 가득한데, 울퉁불퉁한 암벽, 반짝이는 산정 호수, 초록 들판과 가을의 숲이 하이킹이나 다양한 여정을 통해 체험해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 주고 있다. 다리가 피곤해 오면, 기차를 타고 베르니나(Bernina) 철로를 따라 햇살 가득한 발포스키아보(Valposchiavo)까지 여행할 수 있다.

- 1 일차 -
말로야(Maloja) – 실바플라나(Silvaplana): 비아 엔지아디나(Via Engiadina)를 따라 엥가딘 계곡 체험

비아 엔지아디나는 독특한 엥가딘 풍경 속을 헤치고 나가며 다채롭고 대조적인 구간을 만날 수 있다. 향기로운 소나무와 낙엽송 숲을 지나 세차게 흐르는 수정같이 맑은 강물을 따라, 가을 빛깔의 알프스 들판을 건너게 된다. 첫 구간이 말로야부터 실바플라나까지인데, 작은 필라(Pila) 및 블라운카(Blaunca) 마을과 하이디 마을, 그레바살바스(Grevasalvas)를 만나게 되는데, 플라운 다 레이(Plaun da Lej) 위의 꿈결 같은 자리에 있다. 실스-바젤지아(Sils-Baselgia)에서 하이킹 트레일은 거의 계곡 바닥까지 내리막을 이어가는데, 구간이 끝나는 트렌디한 마을, 실바플라나까지 다시 오르막이 이어진다.

- 2 일차 -

생모리츠(St. Moritz) – 포스키아보(Poschiavo):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지나는 기차 여행

엥가딘 계곡은 독특한 기차 여정으로 유명하다. 생모리츠에서 포스키아보까지 이어지는 베르니나(Bernina) 철도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래티쉬반(RhB)의 철도 중 일부로, 숨막힐 듯한 절경을 지나고, 다른 기후 지대를 건넌다. 이 루트의 가장 높은 지점은 오스피치오 베르니나(Ospizio Bernina) 역으로 빙하와 험준한 산세 사이에 자리해 있으며, 포스키아보의 커다란 마을 광장에서는 와인 한 잔을 음미하며 기대어 앉아 남국의 정취를 즐기기 좋다. 거대한 빙하 구멍이 있는 카발리아(Cavaglia) 마을에 들러보아도 좋은데, 수 세기 동안 물과 부유물, 돌이 바위를 침식해 만든 장관이다.

- 3 일차 -

발 트룹슌(Val Trupchun): 스위스 국립 공원에서 붉은 사슴 관찰하고 마못과 인사하고

발 트룹슌은 가을이면 다채롭고 시끄러운데, 9 월이면 이 계곡에 사는 약 500 마리의 붉은 사슴의 짝짓기 철이 시작되기 때문으로, 국립 공원에서는 이 아름다운 동물을 관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 관찰력이 좋은 하이커라면 가을 색깔이 물씬 풍기는 다채로운 식물을 넓은 경사면에서 다양하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며, 마못이나 아이벡스의 모습도 볼 수 있을 테다. 9 월 중순부터 10 월 초까지 운영되는 14km 의 일일 가이드 투어 중 하나를 골라 보아도 좋다. 프라쉬라스(Prasüras)나 에스찬프(S-chanf)에서 시작되어 알프 트룹슌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순환 하이킹은 고지대 산 트레일을 따라 이어지는데, 가이드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다. 쌍안경을 꼭 준비하면 좋다.

- 레스토랑 팁 –

알프 그륌(Alp Grüm): 알베르고 리스토란테 알프 그륌(Albergo Ristorante Alp Grüm)

베르니나 특급(Bernina Express)를 타고 파노라마 여행을 즐기든, 하이킹이나 자전거를 즐기든, 알프 그륌은 잠시 멈추어 품격있는 식사를 즐기며 풍경 속에 오롯이 안겨보기 완벽한 장소다. 알베르고 리스토란테 알프 그륌의 다채로운 메뉴에는 스위스 및 그라우뷘덴(Graubünden) 향토 식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역 내에서 공수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매콤한 메밀 파스타, 피초케리(pizzoccheri)와 육즙이 훌륭한 코르동 블루를 특히 추천한다. 야외 테라스에 자리를 잡을 수 있다면 베르니나 산맥의 야생적인 풍경과 만년설, 팔뤼(Palü) 빙하, 햇살이 입맞춤하는 발포스키아보(Valposchiavo)의 파노라마를 즐길 수 있다.

- 호텔 팁 –

폰트레지나(Pontresina): 호텔 슈타인복(Hotel Steinbock)

폰트레지나 한복판에 있는 이 3 성급 호텔은 3 세대째 이어오고 있는 엥가딘의 게스트하우스로 따뜻한 환대를 체험해 볼 수 있다. 집 같으면서도 매력적인 분위기의 호텔 슈타인복은 문을 활짝 열어 투숙객을

맞이해 줄 뿐 아니라, 주변 호텔의 투숙객에도 스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 휴식을 취하며 재충전 할 수 있는 곳이다. 슈타인복의 아늑한 "사냥꾼의 식당", 콜라니 슈튀블리(Colani Stübli)는 엥가딘 계곡의 향토 식은 물론 세계적인 메뉴도 선보인다. 가을이면 사냥감을 이용한 특선이 준비되기도 한다.

4. 샤프하우저란트(Schaffhauserland)
피노 누아의 땅
레드, 화이트 혹은 로제 모두, 샤프하우젠(Schaffhausen)의 피노 누아(Pinot Noir) 지역은 품질이 우수한 와인으로 유명하다. 북동부 스위스로의 여행은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 가치가 충분하다. 아름다운 풍경과 아늑한 레스토랑은 샤프하우저란트(Schaffhauserland)를 이상적인 가을 여행지로 만들어 준다.

- 1 일차 -
타인겐(Thayngen): 라이아트(Reiat)를 지나는 순환 하이킹
샤프하우젠 칸톤 동부에 자리한 라이아트는 아름다운 보석이다. 걸어서 가장 잘 체험할 수 있는 이곳은 가을 숲, 들판, 초원, 앤틱한 나무틀로 장식된 가옥이 어여쁜 작은 마을들을 지나는 다섯 시간짜리 순환 하이킹으로 다채로운 풍경을 만나볼 수 있다. 하이킹은 타인겐에서 시작되는데, 비버탈(Bibertal) 계곡을 지나 헤가우(Hegau) 화산 지대를 건넌다. 여기에서 하이커들은 알트도르프(Altdorf)까지 이어지는 과거 밀수꾼들의 트레일을 따라가다가 타인겐으로 다시 돌아가기 전, 샤프하우젠의 과일 향 풍부한 피노 누아의 고장인 스위스 최북단 포도밭을 거닐 수 있다.

- 2 일차 -
슈타인 암 라인(Stein am Rhein) – 샤프하우젠(Schaffhausen): 라인 루트(Rhine Route)를 따라 자전거로
라인 루트는 10 구간을 따라가는 자전거 길인데, 라인강의 원천이 있는 산악 지대에서 시작해 바젤(Basel)에 있는 라인 항구까지 이어간다. 이 구간 중 하나가 슈타인 암 라인부터 샤프하우젠까지 이어진다. 안장에 오르기 전, 슈타인 암 라인의 구시가지를 거닐어 보아야 하는데, 좁은 골목들과 화려한 벽화로 장식된 옛 가옥들이 아름답다. 수월한 자전거 투어를 시작하면 네 번에 걸쳐 독일과 스위스 국경을 넘나들게 된다. 마침내 종착지인 샤프하우젠에 도착하게 되면 유럽에서 가장 큰 폭포, 라인 폭포를 꼭 찾아보도록 한다.

- 3 일차 -
샤프하우젠 피노 누아 생산지: 생기 넘치는 가을 축제와 함께 로컬 와인에 축배를
샤프하우젠 피노 누아 생산지의 가을은 일요일마다 특히 생기가 넘친다. 9 월 초부터 10 월 중순까지 뢰닝엔(Löhningen), 할라우(Hallau) 마을부터 지블링엔(Siblingen), 오슈터핑엔(Osterfingen) 마을은 오래된 와인 생산 전통을 기념하는 축제를 연다. 주변 시골 지역은 완만한 언덕 전체를 황금빛 잎으로 장식한 포도밭으로 가장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선사한다. 이 마을들을 거니는 사람들은 골목을 지나는 마치 소리로 환영을 받게 된다. 건물 외관과 분수대는 꽃으로 화려하게 장식되고, 이 지역의 셀러들은 분위기 있는 와인 바로 변신한다.

- 레스토랑 팁 –
오슈터핑엔(Osterfingen): 베르그트로테 오슈터핑엔(Bergtrotte Osterfingen), 레스토랑 1584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

오슈터핑엔의 베르그트로테는 1584 년에 지어졌는데, 이 거대한 레스토랑은 요즘 샤프하우젠 피노 누아 지역에서 미식의 중심지가 되었다. 레스토랑 디자인은 옛것과 새것, 아늑함과 우아함을 고루 갖추고 있다. 메뉴에는 계절에 따른 전통 요리가 주를 이루는데, 언제든 지역에서 난 재료를 사용한다. 레스토랑 뒤편에 있는 와인 벽이 특히 눈길을 사로잡는데, 60 종이 넘는 샤프하우젠 와인을 디스플레이하고 있어 식사와 함께하거나, 구입할 때 둘러보기 좋다.

- 호텔 팁 –

샤프하우젠(Schaffhausen): 호텔 레스토랑 프롬나드(Hotel Restaurant Promenade)

마을 중심에서 단 몇 분 거리에 위치한 호텔 레스토랑 프롬나드는 40 개의 아늑하면서도 현대적인 객실이 준비되어 있다. 이곳의 레스토랑은 쉬어가기 좋은 평화로운 스폿들로 가득한 아름다운 공원으로 유명한데 최고의 미식 체험을 해볼 수 있다. 공원을 지나는 맨발 산책로도 있는데, 발밑으로 자연을 한가득 느껴볼 수 있다. 호텔 지붕은 이 호텔이 자연과 지속가능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주고 있는데,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은 호텔이 사용하는 전기와 난방의 25%를 생산하고 있다.

5. 스위스 그랜드 투어

루체른(Luzern)에서 란트쿠아르트(Landquart)까지

그랜드 투어(Grand Tour)의 본 구간은 온통 물에 관한 것으로, 세 개의 아름다운 호수와 웅장한 라인 폭포를 지난다. 그 중간에 그림 같은 마을과 다채로운 풍경을 지나는 여정이 이어지고, 문화와 미식 체험도 곳곳에서 즐길 수 있다.

- 1 일차 -

루체른(Luzern)에서 라퍼스빌(Rapperswil)까지

스위스 그랜드 투어(Grand Tour of Switzerland)의 로드 트립은 루체른에서 시작한다. 여정은 루체른 호수를 따라 퀴스나흐트(Küssnacht)와 비츠나우(Vitznau)를 지나 게르사우(Gersau)까지 이어진다. 10 월 말까지는 카 페리를 타고 반짝이는 호수를 건널 수 있다. 혹은 게르사우에서 브룬넨(Brunnen)까지 도로를 따라 여정을 이어갈 수도 있다. 여정은 역사적인 알트도르프(Altdorf) 마을로 이어지는데, 빌헬름 텔의 이야기에서 화살로 사과를 쏘는 유명한 장면이 등장하는 곳이다. 팁: 인터랙티브 게임, "텔 크라임 신(Tell Crime Secne)"이 기다리고 있는데, 스위스 영웅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이 아름다운 산과 호수가 펼쳐진 우리(Uri) 지역을 좀 더 깊이 알아볼 수 있다. 자유를 위해 투쟁했던 흥미진진한 이야기에서 빠져나왔다면, 다시 운전대를 잡고 브룬넨에서 슈비츠(Schwyz)까지 여정을 이어간다. 가는 길에 아인지델른(Einsiedeln)으로 약간 우회해도 좋은데, 스위스에서 가장 중요한 성지순례지로 꼽히는데, 인상적인 수도원을 둘러볼 수 있다. 라퍼스빌(Rapperswil)에서 저녁노을을 맞이할 수 있는데, 상부 취리히 호수(Upper Lake Zurich)의 해안이 아름답다. 그림 같은 구시가지는 중세 고성과 아름다운 호숫가 산책로가 있어 남국의 정취까지 느껴질 정도다.

- 2 일차 -

라퍼스빌(Rapperswil)에서 샤프하우젠(Schaffhausen)까지

로드 트립은 아름다운 취리히 호수(Lake Zurich)를 따라 트렌디한 취리히 시티를 지나 옛 산업 지대였던 빈터투어(Winterthur)까지 이어진다. 팁: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모두 직접 체험해보며 기술과 과학에 대해 배워볼 수 있는 스위스 과학 센터 테크노라마(Technorama)는 한 번쯤 찾아볼 만하다. 이후에는 "도심 골프" 라운드를 즐겨볼 수 있는데, 머릿속을 비우고 운동을 좀 하고 싶은 이들을 위해 제격이다. 끝없이 펼쳐진 초록 필드 대신에 과거 산업지대 홀, 공원, 자갈밭에 마련된 아홉 개의 레인에서 골프를

치게 된다. 앞으로의 여정을 이어가다가 호텔 바나나 시티(Hotel Banana City)에서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다. 51 개의공식 스낵 박스 판매 지점중 하나다. 빈터투어를 뒤로하고 어여쁜 마을들과 그림 같은 풍경을 따라가다가 샤프하우젠을 향하게 된다. 그러나 하루의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반드시 라인 폭포에 들러야 한다. 자연의 힘에 감탄하며 폭포 위 높은 지점에 서 볼 수 있는데, 웅장한 폭포의 괴성이 귓속에 울려대고 바람은 얼굴과 머리카락에 물방울을 뿌려대는 체험을 할 수 있다. 혹은 보트를 타고 이 자연의 힘을 조금 더 가까이 느껴볼 수 있다. 차로 샤프하우젠에 도착하면 이 중세 도시는 평화와 고요가 감도는 신비한 분위기를 한가득 선사한다.

- 3 일차 -

샤프하우젠(Schaffhausen)에서 생갈렌(St. Gallen)까지

샤프하우젠에서 출발해 어여쁜 마을 슈타인 암 라인(Stein am Rhein)을 지나게 되는데, 목재 골조의 가옥들이 잘 보존된 것으로 특히 유명한 마을이다. 보덴제(Bodensee) 호수 하부와 보덴제 호수를 따라가다가 로만스호른(Romanshorn)까지 여정을 이어간다. 보덴제 컨테이너를 둘러보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보덴제 지역의 역사에 대한 흥미로운 미니 박물관이 자리해 있다. 팁: 이제 호숫가를 떠나 바인펠덴(Weinfelden)을 향해 와인 트레일하이킹을 할 시간이다. 포도밭을 지나는 아름다운 하이킹으로 중간에 와인 생산 과정, 다양한 포도 품종, 로컬 와인 생산자들에 대한 정보 팻말 30 개가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모든 정보를 소화한 후라면 그 와인 중 일부를 직접 시음해 보아야 한다. 코드를 입력해서 와인 시음을 할 수 있는 와인 금고를 시도해 보아도 좋다. 그리고 보덴제 호숫가에 있는 아르본(Arbon)으로 다시 돌아와 사이더와 증류주 박물관에 꼭 들러보도록 한다. 박물관은 나무에 열린 사과가 병입되기까지 그 전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데, 묄(Möhl) 사이더 양조장의 향기로운 과거에 대해 잘 알아볼 수 있다. 아르본에서 여정은 생갈렌으로 이어진다. 생갈렌 수도원과 이곳의 바로크 대성당은 생갈렌의 상징으로, 도서관과 그 소장품과 함께 1983 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었다.

- 4 일차 -

생갈렌(St. Gallen)부터 란트쿠아르트(Landquart)까지

네 번째 날은 슈파이허(Speicher)와 토이펜(Teufen)을 지나 아펜첼(Appenzell)까지 향하는 여정이 시작된다. 작은 마을 아펜첼은 아름다운 가옥과 벽화로 유명한데, 길드 하우스나 플라우데라이(Flauderei) 상점 건물이 유명하다. 팁: 다음 여정을 위해 차를 세워두고 케이블카를 타서 호허 카스텐(Hoher Kasten)으로 올라가 보면 좋다. 정상에 서면 360 도 파노라마가 펼쳐지는데, 여섯 개 나라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이 풍경은 동부 스위스에서 유일한 회전 레스토랑에서의 식사나, 식물 다양성을 관철할 수 있고, 그랜드 투어 포토 스팟이 있는 알프스 가든을 지나는 산속 순환 트레일, 에우로파 룬드베그(Europa-Rundweg)하이킹으로 가장 잘 감상할 수 있다. 계곡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운이 좋다면 아펜첼 소 떼 몰이 행렬을 구경할 수도 있는데, 여름의 끝자락에 목동들이 여름 동안 알프스 방목지에서 소 떼를 이끌고 계곡으로 다시 돌아오는 행렬이다. 로드 트립은 우어내쉬(Urnäsch)와 노이 생 요한(Neu St. Johann) 사이의 드림 루트를 따라 이어지다가 부흐스(Buchs)를 향하고 국경을 지나 바두츠(Vaduz)로 간다. 다음 방문지는 바두츠 성인데, 리히텐슈타인(Lichtenstein)의 상징이자 왕가의 공간이다. 왕궁을 둘러본 뒤, 스위스로 돌아와 마이엔펠트(Maienfeld)의 그림 같은 하이디 마을을 둘러본 뒤, 최종 목적지인 란트쿠아르트에 도착하게 된다.

자료제공: 스위스 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